

농특산물 쇼핑몰 ‘장수물’ 연매출 첫 11억 돌파

3년 만에 5배 성장…15일부터 전 품목 20% 할인 쿠폰 제공 ‘회원 감사 이벤트’ 진행

장수군이 운영하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장수물’이 연매출 최초 11억 원을 돌파했다. 2022년 연매출 2억 원에 불과했던 ‘장수물’은 2023년 하반기부터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 8억 원으로 급성장했고 올해는 현재 기준으로 11억 원을 달성하며 전국 지자체 운영몰 중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3년 만에 약 5배 성장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다.

주요 성장 요인으로 △장수물 판매상품의 다양화, △시기별 품목 입점 전략 △다양한 프로모션 운영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등을 꼽았다.

특히 기존에는 사과, 한우, 토마토, 오미자 등 일부 대표 농특산물과 가공품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사인머스켓, 꺼먹대지, 절임배추, 장수사과빵, 떡, 계란, 장미, 산양유 등으로 판매 품목을 다각화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농가와 가공업체 등 50여 개 업체, 60여 개 품목이 새롭게 입점했으며 소비자 선택 폭 확대와 함께 장수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장수군 홍보대사 최재명 가수가 직접 부른 ‘장수좋다’ 홍보영상, SNS 마케팅, 군 대표축제·직거래 장터 연계 프

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도 성과를 견인했다. 여기에 장수군과 서울시 등에서 진행된 각종 오프라인 판촉행사와 연계해 ‘장수물’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홍보를 통한 신규 회원 가입 유도에도 집중했다.

이에 ‘장수물’ 회원수가 2년 전과 비교해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장수군은 이번 연매출 10억 원 돌파를 기념해 기간 ‘장수물’을 이용해 준 회원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15일부터 전 품목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20%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서주 기자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조성에 첫 단추

2029년까지 2만㎡에 다양한 산악프로그램 즐기도록

전라남도는 2026년 정부예산에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국비 2억 1천500만 원을 확보, 자연친화적 안전 중심의 공공형 산림레포츠 모델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시설은 강원 강릉, 경북 문경, 경남 밀양 등 동부·중부권에만 조성돼, 서남권은 사실상 산림레포츠 기반시설의 공백지대였다.

이번에 조성되는 산림레포츠센터는 서남권(전라·충청) 지역 첫 공립시설로, 전남형 산림레포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도민 체력 기회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을 일원 2만㎡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 300억 원(국비 150억·군비 150억)을 투입해 조성된다. 질라만, 산악자전거, 로프체험시설, 트릴라프 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자연을 체험하며 즐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교육·안전·체험·전문인력 양성 기능까지 하는 서남권 핵심 레포츠 플랫폼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본격 착수해 산림레포츠 전문기관 기능을 목표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역 특성, 지형,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전한 시설 설계를 추진, 향후 운영 안정성을 높여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대상지인 무안 승달산 일대는 현재

의 지형과 우수한 접근성을 갖췄다. 한국 중요 산림식물자원을 보존하는 후계원, 숲속 야영장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립 산림레포츠센터와 연계해 서남권 산림관광 레포츠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섭 국장은 “국비 확보는 서남권 산림레포츠 기반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서남권 산림레포츠 수요를 충족시키는 핵심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설계와 국비 확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시설로 조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도는 12월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갈ium·삼국·개성 가득 생맥걸린 까치설의 숲향비꽃 술도깨비(탁주 5.8%)를 선정했다.

우덕현 기자

美관세 재협상·K-스틸법 시행령 조속 마련 호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강도시 광양시, 포항시, 당진시가 심화하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다.

권항영 국회의원(전남 광양시), 이상휘 국회의원(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과 3개 도시 시장, 상공회의소 회장이 함께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철강제품 관세 재협상 및 K-스틸법 실질적인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서 광양·포항·당진 3개 도시는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변정

부 차원의 대미 대응 전략 조속 마련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과 철강기업 의견의 충분한 반영 ▲철강산업 위기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 및 고용위기지역 선제적 지정 및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의 3대 정책을 건의했다.

먼저,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외교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대미 재협상 및 대응 전략을 조속히 수립해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시행령에 기업의 전기 요금 부담에 대한 경감 대책 및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 등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끝으로 철강산업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포항시와 광양시에 이어 당진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포항시에 이어 광양시와 당진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 도시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의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덕현 기자

적성면 체육관 준공, 건강백세 시대를 열다



순창군 적성면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적성면 체육관’이 준공식을 갖고 새롭게 문을 열었다.

적성면 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적성면 기관 사회 단체장, 내외귀빈 등 200여명의 군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준공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준공식은 개회 및 내빈 소개, 국민의례,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테이프 커팅과 기념촬영 등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체육관 건립 사업은 2021년 1월 공모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건축공정을 제외한 모든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25일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완공됐다.

총 31억 3천만 원이 투입되어 미세먼지와 폭염 등 변화하는 기후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체육과 문화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건강 100세 시대’ 기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최영일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적성면 체육관은 앞으로 면민들의 체육활동과면 단위 행사를 아우르는 다목적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될 것”이라며, “이곳에서 면민들이 건강 증진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준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어 손종석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군수, 의장, 군의원 등 주요 내빈이 참여한 테이프 커팅식을 끝으로 준공의 의미를 되새겼다. 최 군수는 이 자리에서 “오늘의 이 준공이 적성면의 새로운 활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앞으로도 면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6년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총 4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순창농협은 콩 정선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등을 구축하여 생산부터 저장, 유통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신승민 기자

전북도 미래산업·하계올림픽 유치 동력

전북, 컴업 2025 현장에서 코스포와 전북 비전 담긴 피지컬 AI 좌담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과 손잡고 피지컬 AI 육성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등 주요 현안 해결에 나섰다.

전북도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 2025’ 현장에서 코스포와 함께 ‘피지컬 AI’ 기회의 땅, 전북’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메가존클라우드 이주완 의장 ▲페르소나에이아이 유승재 대표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신성규 부사장 등 국내 대표 AI 디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공지능(AI)을 실물 산업에 적용하는 ‘피지컬 AI’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농생명·바이오·모빌리티 등 전북이 보유한 실물 산업 기반이 신기술 실증과 상용화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좌담회에 이어 전북자치도와 코스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는 코스포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올림픽 유치를 위한 민간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 기술이 세계 무대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컴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올해는 미국·영국·사우디아라비아 등 46개국의 창업가와 벤처캐피털(VC) 관계자 등 약 6만 명이 참석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와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3일간 열린 이번 행사에 전북 공동관을 운영하며, 도내 34개 이상의 창업 기업이 기술 홍보, 투자 유치, 해외 시장 진출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스포는 ‘배달의민족’을 창업한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의장을 시작으로

로 유니콘 기업 창업가들이 이끌어온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현재는 위즈덤 한상우 대표가 4대 의장을 맡고 있으며, 2,500여 개의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회원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전북의 미래 전략을 함께 논의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전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회의 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도내 14개 시·군, 운영사(KTcs), 강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25 전북 디지털배움터 성과보고회’를 열고, 운영 성과 공유와 우수강사·가이드 시상을 진행했다.

도는 올해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통해 도민 5만여 명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122명의 지역 ICT 인재를 신규 고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부터 디지털배움터를 ‘AI 디지털배움터’로 전환하고, 거점센터를 기존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는 등 AI 중심 교육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천영평 실장은 “AI 기반 사회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도민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고창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설계착수

김치산업 전문 설계자문단 첫 가동, 자문회의 개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자문위원들은 현장의 기술 경험과 산업 동향을 기반으로 시설 규모 및 배치 타당성, 절임·세척·냉장·포장 등 주요 설비 기능 등에 대해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고창군수는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

단지 구축사업은 고창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지역 농업과 중소 가공업체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프로젝트다”며 “초기 설계부터 자문단의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해 완성도 높은 시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임 기자

광산구 동곡동 농촌 마을 ‘물 걱정’ 해소에 나서

광주 광산구는 농촌 마을인 동곡동 용봉지구(용봉동, 본덕동 일원)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 말부터 ‘용봉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용봉지구는 영산강 하천수를 끌어오는 상류에 용봉양수장이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마을 전반에 원활히 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이에 광산구는 동곡동 용봉마을 앞에 용봉2양수장을 신설하고, 마을 상류에 있는 기존 용봉양수장의 수증펌프, 용수관로 등 설비를 개선할 계획이다.

양수장이 2곳으로 확대되면 용봉지구는 61ha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 기반

을 갖추게 된다. 광산구는 사업이 완료되면 용수 수급 불균형과 물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용봉지구의 가뭄 대응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에는 국·시비 등 총 12억 2,400만 원이 투입된다.

광산구는 이달 말 공사를 시작해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양수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용봉지구의 안정적 용수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가뭄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영농기 이전에 원활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는 12일 지역 공공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석웅 광산구 부구청장을 비롯해 광산구 안전관리 자문단, 시민안전과, 치수방제과 관계자 등 8인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우산동 우수 저류시설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 현장 인근 구조물의 균열 및 침하 발생 유무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우수 저류시설의 하중 분산을 위한 안전장치가 적절히 설치됐는지 등 공사 중인 구조물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구는 공공부문 건설 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손권일 기자